을사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불기 2569년 백중을 맞이하여 선망조상과 일체유주 무주 고혼영가 및 모든 인연 영가님들을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백중기도는 부처님의 십대제자중의 한분이신 목련존자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49재를 올려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어머니이신 청제 부인을 구제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백중기도는 불보살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원력으로 영가님들의 누겁에 쌓인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삼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성취케하고 나아가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서원의 기도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 올리는 정성스러운 재와 백중49일간의 특별기도에 함께하시어 신도님과 신도님 주변의 모든 인연에게 자비가 충만하시고 무량복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49재 일정

입재 : **7**월 **20**일(음 6월 26일) 일요일	
초재 : **7**월 **26**일(음 윤6월 2일) 토요일	
2재 : **8**월 **2**일(음 윤6월 9일) 토요일	
3재 : **8**월 **9**일(음 윤6월 16일) 토요일	
4재 : **8**월 **16**일(음 윤6월 23일) 토요일	
5재 : **8**월 **23**일(음 7월 1일) 토요일	
6재 : **8**월 **30**일(음 7월 8일) 토요일	
회향 : **9**월 **6**일(음 7월 15일) 토요일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위패비 **2**만원 / 영가기도비 - **3**만원
(49일동안 영가등 밝혀드립니다)
※매 제사때 공양을 올리실 설판재자 시주받습니다.

■ **접수안내**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 010-6732-0133(문자접수)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5 | 6

벽화이야기 청상지옥 / **이달의 법문** 새로운 발심으로 나아가는 여름 / **주지스님 법문** 속리산의 여름, 고요한 정진의 숲에서 / **수행여화** 숲과 대지에 몸을 맡겨라 / **감로의 글**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 / **걸망메고** 봉사와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 **법주사 템플스테이** / **승려복지기금 동참안내**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말사소식** /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신중기도** / **생일불공** /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 **생전예수재 안내** / **을사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철상지옥 鐵床地獄



죄인을 뜨거운 철판에 올려놓고 몸에 쇠못을 박고
무거운 쇳덩이로 눌러서 압살하며
절구통에 넣어서 방아를 찧는다.
이때 지장보살이 지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자를 거느리고 나타난다.
살생殺生과 투도(偷盜,도둑질)와 사음邪淫죄를 지은 자와
폭력과 권력으로써 남을 괴롭힌 자가
끌려가서 형벌을 받는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5 6 | 통권 401호



2 **벽화이야기** 철상지옥
4 **이달의 법문** 새로운 발심으로 나아가는 여름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속리산의 여름, 고요한 정진의 숲에서 정덕 스님
8 **수행여화** 숲과 대지에 몸을 맡겨라 현진 스님
10 **감로의 글** 법설의설경 – 연기법의 의설 – 다섯 번째 고광 스님
14 **걸망메고** 봉사와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무진 스님
17 **법주사 템플스테이**
18 **승려복지기금 동참안내 /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20 **말사소식**
21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생일불공**
22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23 **생전예수재 안내**
24 **을사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9(단기4358)년 6월호 통권 401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새로운 발심으로 나아가는 여름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도량은 온통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밝았습니다.
저마다의 서원과 발원이 담긴 연등 하나하나가 불성을 향한 마음의 등불이 되어 법주사의 봄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연등 아래 모인 사부대중은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연꽃을 올리며, 마음속에 각자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찬란했던 그날, 여러분 모두의 원력으로 도량이 더욱 청정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곧 '이 세상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자비의 실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 보고, 우리 삶 안에 부처님의 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연등을 단 마음 그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5월 12일, 우리는 하안거 결제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른 새벽, 도량을 깨우는 목탁소리 아래 많은 선지식들과 수행자들이 법주사의 산문을 닫고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여름 한 철 동안 삼매와 선정, 정진으로 일관하겠다는 결심을 안고, 해탈의 길을 향한 진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안거는 무더운 날씨를 견디며 외부의 유혹을 끊고, 오직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뙤약볕 아래 피어나는 연꽃처럼, 수행자는 열기 속에서 더욱 단단한 깨달음의 씨앗을 틔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안거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과 변화의 시간이요, 수행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요즘처럼 시대가 혼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질수록, 수행은 더더욱 절실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욕망은 채워도 다시 일어나고, 미움은 끊어도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러한 자문은 수행자의 일상이자, 모든 불자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부터 큰스님들께서는 안거를 "몸은 산문 안에 머물고, 마음은 진리 가운데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도량에 있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것은 참된 안거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몸은 일상 속에 있더라도 마음이 청정하고 법에 귀의해 있다면 그 역시 훌륭한 정진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일반 불자님들께서 출가 수행자처럼 결계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안거에 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번뇌를 다스리며, 자비심으로 타인을 대한다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만물이 초록으로 무르익고, 햇살도 뜨겁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연은 쉼 없이 자신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나를 다시 돌아보고, 게으름과 방일을 떨쳐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바로 내일의 과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월의 시작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본받는 길이요, 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올 여름, 법주사 도량 안에서는 스님들이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도량 밖에서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수행 공동체입니다. 그 마음이 모일수록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고통은 조금씩 가라앉으며,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물결이고, 많은 사람의 기도는 큰 강이 되어 마침내 진리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함께 정진해 주시기를, 그리고 늘 부처님 가피 속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속리산의 여름, 고요한 정진의 숲에서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속리산 깊은 산자락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푸르러졌습니다. 법주사 도량에는 어느덧
여름이 찾아와 초록의 기운이 넘실거리고,
아침저녁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수행자의 마음도 더욱 고요해집니다. 한 철 열심히
살아낸 봄이 지나고 이제는 수행에 몰두하는 여름,
하안거夏安居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음력 4월 보름날 법주사의
대웅보전에는 안거에 들어갈 선사와 수행자들이
도열하여 부처님 전에 삼배의 예를 올리고,
삼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결계를
성립하였습니다. 조실스님의 법어가 울려 퍼지고,
이 도량 안에는 수행의 기운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하안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수행의 전통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인도 우기雨期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황을
멈추고 한곳에 머물러 수행에 전념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안거安居입니다.
이름 그대로, '편안히 머문다.'는 뜻이지만,
사실 그 속뜻은 '흔들림 없이 정진한다.'는 수행의
다짐이 담긴 용맹한 이름입니다. 이 여름, 법주사의
도량 안에는 그러한 뜻을 품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기 위해 또 한 번 정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 하안거 기간 동안 법주사의 선방과
각각 수행처에서 묵묵히 정진하시는 선사님들과
스님들을 잘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 큰 소임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한 철 동안 아무런 요구도 없이
묵묵히 수행의 한길을 가는 스님들, 산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며 오직 경經과 선禪, 율律의 길에
자신을 던지는 이 수행자들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들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어지러운
욕망 속에서도 고요한 선정의 등불을 밝히는
이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제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라 하셨습니다. 수행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상과
욕망을 다스리고, 끊임없이 흐트러지는 마음을
바로잡는 고요하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묵언 속에 참선하고, 경전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매 끼니마다 발우공양을 하며 한톨의 쌀에도
감사함을 배우는 삶. 이러한 일상이 바로 수행이며,
이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량을 지키고
돌보는 일이 주지로서의 소임입니다.
법주사에 찾아오신 불자님들과 참배객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도량을 찾아와 연등을 달고 기도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평일에도 이 산사의 맑은 기운을
찾아 발걸음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도량에
공덕이 되고, 그 정성이 수행자의 밥 한 그릇,
물 한 바가지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량을 찾는 발길이 잦을수록 사찰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송이 연꽃에 마음을 담아 공양하고,
한 마디 염불로 자신과 세상을 축원하는 그 순간이,
곧 이 사찰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수행자와 불자, 사찰과 신도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살아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행의
터, 깨달음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법주사입니다.
또한 이 법주회보를 통해 법주사와 인연 맺은
많은 분들께도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종이 한 장,
글 한 줄이지만, 그 속에는 수행자의 숨결과 도량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도량에 자주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이 회보를 통해
법주사의 소식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지고,
갈등은 깊어지며, 삶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쉼'이 아니라 '멈춤'이
필요합니다. 쉼은 단순한 휴식이지만, 멈춤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곧 멈추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안거의 참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름은 자연이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계절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한껏 성장하고, 생명은
결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수행자에게도 이 여름은
자신의 참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진리의
계절입니다. 날씨는 덥고, 몸은 쉽게 지치지만,
그 속에서 얻는 자각과 깨달음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소중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또한 삶 속에서 스스로의 하안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지혜와 자비를 일상 속에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행이 되고,
여러분의 하안거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벗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뜻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고요하게,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걸어갑시다.
끝으로, 올 하안거 동안 법주사의 수행자들이
무사히 정진을 마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수행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어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법주사 도량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숲과 대지에 몸을 맡겨라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했던 분이 "꽃이 없으니까 삶이 우울하더라"는 말을 했다. 그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흰 눈이 쌓여있어 사뭇 새로웠으나 그 후 줄곧 겨울 풍경만 마주하니 기분이 가라앉고 생활 리듬도 무뎌지는 느낌이 왔다. 그런데 날이 풀어지고 눈 쌓였던 거리에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니까 어둡던 마음도 저절로 밝아지더란다. 그때 비로소 왜 우리에게 꽃이 필요했는지 실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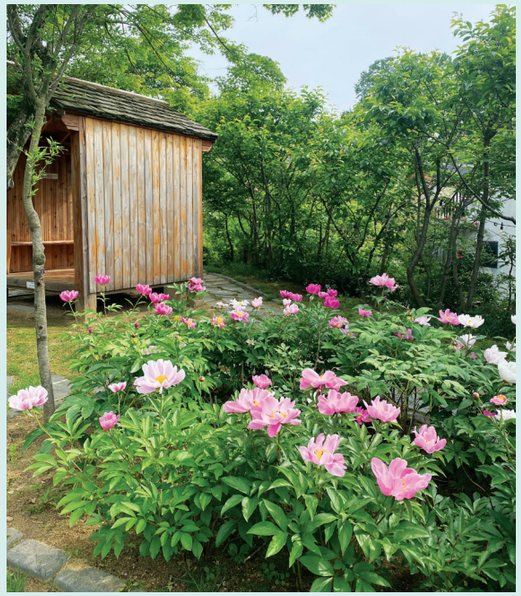
어느 젊은 여성이 나무에 기대여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녀의 사연은 '죽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삶의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설움에 겨워 울었다'는 걸 고백했다. 정원이 한 사람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준 예라 할 수 있다.

꽃과 나무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까. 정원이나 공원에 행복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다. 말 못 할 아픔과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둥지처럼 찾아와 자신의 고통을 살짝 전하고 가는 비밀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정원과 숲은 인간 가까이 있는 가장 거룩한 안식처다. 종교 이전에 숲이 먼저 인간에게 구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숲에서 지친 영혼을 순화하며 삶의 지혜를 배웠을 것이다. 숲은 고금을 따질 것 없이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성소다.

며칠 전 목수국 정원 한 곳에 마른 흙을 채우고 지표면을 높이는 작업을 했다. 그곳은 본래 논이었던 곳이라 진흙이 많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는지 목수국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물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표정과 물이 지나쳐서 힘들어하는 표정이 서로 다르다. 잎이 시들시들하다가 맥없이 떨어지는 현상은 어디까지나 땅의 문제다. 과연 그 아래를 파보니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뿌리가 썩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물 좋아하는 수국이라지만 땅의 습기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더 병세가 심해지기 전에 그 꽃들을 옮겨 심고 그 자리에 마른 흙을 실어와 돋우어주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다양하게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정원에서도 말라 죽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수목들이 많다. 한날한시에 단풍나무를 심었더라도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나무는 살아났다. 한 나무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까지는 수종의 특성에 알맞은 땅, 기후, 장소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상식도 없이 열정만 앞선 것이다. 그렇지만 실패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수업이 되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을 것이다. 실패의 과정을 무시하고 단번에 성공하는 일은 없다. 어디까지나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나도 전문적인 원예 지식이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현장에서 겪은 실패가 나의 스승이 되었다. 한때는 노지에 국화 수백 포기를 심고서 목가적 풍경을 기대한 적도 있었다. 결국 노지 국화는 진딧물 등 병충해에 취약하고 풀 관리도 힘들어 포기하고 말았으나 그 실패는 국화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 그 자리는 목수국 정원으로 바뀌어 있다.



저 멀리 전라도에서 실어 온 겹벚나무 죽인 걸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부끄럽다. 교토의 겹벚꽃 장면을 감상한 후 여기에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제법 큰 나무를 수소문하여 열 그루를 옮겨와 심었다. 그런데 진흙 많은 곳에 자리 잡았던 것이 문제였다. 뒤늦게 잘못을 알고 자리를 옮겼으나 두 그루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그 병세를 몰랐던 나의 무관심이 안타까운 희생을 초래한 것 같아서 지금껏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 다른 벚나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그때의 실수가 큰 실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절집에서는 평생 학인이란 말을 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원사는 없다. 일생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공부다.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자연처럼 섣불리 짐작할 수 없는 게 식물의 세계다. 그러한 생태를 잘 관찰하면서 매일 학습해 가는 곳이 개인 정원이다. 지금껏 그 어떤 일에도 크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정원 일만큼은 오래 붙들고 있는 이유는 늘 흥미로운 학습장이기 때문이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정원과 서재가 있다면 필요한 것을 다 갖추었다'는 잠언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적절한 말씀이다. 공교롭게도 책과 정원은 모두 아날로그 영역이라 실제로 보고 만지며 그 속에서 기쁨을 알아가기 때문이다. 내 손길 없이 단정해지는 정원은 없다. 그 어떤 기계라 할지라도 정원을 대신 꾸며 줄 수 없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풀 매는 로봇이 등장하여 정원 일을 절반으로 줄여 줄 수 있다면 몰라도 아직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 분야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일수록 흙을 만지며 생명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정원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정원을 가꾸면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이 쏟아진다. 지금껏 살 빼기를 따로 한 적 없고 두통을 앓아본 일도 없다. 이러하니 정원에서 흘리는 땀은 알차고 튼튼해지는 명약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근래에 내가 주장하는 건강학은 숲과 대지에 몸을 맡기면 병원 갈 일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어김없는 진리다. 우리가 생을 끝내고 돌아갈 곳 또한 이 흙이다. 그러기에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뿌리고 거두는 대지의 질서를 등지면 사람은 병들 수밖에 더 있겠는가.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

연기법緣起法의 의설義說 – 다섯 번째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어느덧 초파일이 지나고 성큼 여름으로
진입했건만, 속리산의 새벽은 여전히 쌀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불하고 법당문을
나서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여명黎明이 드러나 도량이 한눈에
밀려 들어옵니다. 법주회보의 독자도
칠흑漆黑 같은 무명에서 벗어나
여명이 드러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법설의설경의 의설義說을
다섯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색名色의 의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경전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緣識名色者 云何名? 謂四無色陰 受陰 想陰 行陰
識陰. 云何色? 謂四大 四大所造色 是名爲色.
此色及前所說名 是爲名色.

식識을 연한 게 명색名色이라는 자는 무엇을
이름(名)이라고 일러주는가? 네 가지 무색음을
이르면서 수음受陰, 상음想陰, 행음行陰,
식음識陰이라고 한다. 무엇을 색色이라고
일러주는가? 사대四大를 이르면서 사대로
만들어진 게 색色이고 이것을 이름하여
색이라고 한다. 여기의 이 색色과 앞에서 말했던
이름(名), 이것을 명색名色이라고 한다.
독자는 이 설명을 읽고, 아마 '이거 불교대학에서
늘 배우던 오온五蘊과 똑같은데? 정말,
이게 의설이라고?'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의설이 맞습니다.
명색名色이란 단어는 불교 용어에서 출발해
꽤 어려운 단어이지만, 우리 일상에 꽤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라는 식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생각(名)과 모습(色)'이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온'과 '명색'은 같은 것이고,
또 '나'라고도 배웁니다. 아무래도 불교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기에 이런 불교 용어가
일상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쓸 만큼 우리는 명색을
'수상행식受想行識 + 색色'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색의 의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추세麤細라는 개념입니다.
추麤는 '거칠다', 세細는 '작다'라는 표현인데,
인도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 것은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했기에 벌어진 생각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거칠기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미세하기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은 거칠기에 보이고,
정신은 미세하니 보이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색(물질)은 사람으로 따지면 '몸'인데
눈에 보이니 거칠(麤)고, '수상행식(정신작용)'은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미세(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 등장하는 무색음無色陰은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이란 뜻으로,
'미세한(細) 것'입니다. 여기서 음陰은 온蘊의
다른 번역으로, '존재들', '존재의 무더기',
'존재의 다발' 등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색음色陰도 있겠지요?
색음色蘊은 '거칠어서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고,
수상행식음受想行識陰은 '미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정신에 해당하는
'느낌, 떠오르는 생각, 업,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정신적인 현상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의 이런 생각에는 언제나 '존재'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정신과 물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꽤 그럴듯한 이론이고,
심지어 듣고 있으면 설득되기도 합니다.

몸은 색(물질)인데, 이것은 지수화풍의 사대로
만들어졌기에 죽으면 다시 사대로 흩어진다고
하고, 죽은 시체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느낌(受), 떠오르는 생각(想), 행업(行),
영혼(識)도 같이 결합해 '나'라는 사람이 되었다니
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런 생각은 당시에도 이미 팽배했으니,
굳이 6년을 고행해 가면서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외도라고
비판할 이유가 있을까요? 필자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그 말이 옳다면서
스승으로 섬기며 평생 살았을 것 같은데….
깨닫고 보니 당연히 그렇지 않았기에
부처님은 오랜 고민 끝에 연기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존재들(五蘊)'의 상호 결합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색名色의 법설法說은 무엇일까요?
명색은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나 '나'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되는 대상'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識도 인식주체인 영혼이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된
대상(명색)'과 짝으로 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 작용'이 있으므로 '이름으로 된
대상'도 있고, '인식 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이름으로 된 대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는 세상과

내가 상호 교류하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생각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란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거나,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존재를 파악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존재 역시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시간을 느낄 수 있다면
시계는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은 어떨까요? 공간도
느낄 수 없습니다. 대상의 느낌이 없을 때를
공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공간이 아니라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는
'시간과 공간'은 실재實在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상상한 기본 개념일 뿐입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과하지 않은 그 생각을
부처님은 무기無記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기의 생각으로 펼쳐낸 이론은 끝내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장하는 이론일 뿐,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근거가 되는
'시간과 공간'이 무기無記이다 보니,
존재도 '근거 없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識도, 명색名色도 존재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재로 이해하면 내 몸속에 있는
참나(영혼)가 몸 밖에 있는 세상(色)을 느끼고(受),
상상하고(想), 업을 만들고(行),
인식한다고(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도
나도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보니 '법으로 된
세상(法界)'을 스스로 창조해 놓고
'자신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어리석게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이해시키기 위해 부처님은 연기의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면 결국에는 열반에
이른다(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몽상은
'뒤집힌 꿈같은 생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는 꿈같은 상상'이란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꿈속에서 어서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해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 탐착하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꿈인 단서를 찾고 깊이 사유하여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꿈속에 살더라도 꿈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탐착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도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風)처럼,
무소의 뿔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덧 법주사 총지선원에도 수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하안거 결제를 시작했으니,
이 글을 읽는 독자도 선원 수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제가 끝날 때까지 '어째서 꿈이라고
말했는지' 깊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莊子는 호접몽胡蝶夢에서
'나비 꿈을 꾼 장자인지,
장자 꿈을 꾸는 나비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는 꿈속의 내가 현실을 꿈꾸는가?
아니면 현실의 내가 꿈을 꾸는가? 할喝!
법주사 응향각에서 답을 기다리며

봉사와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무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회향하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도반이 진심으로 참여했고,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더해져 부처님 오신 날 아침, 환하게
피어난 법주사의 도량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심으로 방문한 불자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를 전하며, "어서 오십시오",
나의 정성을 조건 없이 베풀 때, 그 마음에는
집착이 사라지고 이타심이 자랍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실천은 도반들의 마음을 모아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행사 이후, 불교대학에서는 십시일반 보시금을 모아







나무아미타불
찬란한 연등이 도량을 가득 수놓은 부처님 오신 날.
그날 아침 법주사에는 먼 동녘 해가
떠오르기도 전부터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꽃으로 장엄된 삼문을 지나 대웅보전까지
오르는 길목마다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염불하며,
정성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그 감격은
매번 새롭고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 깊은 감동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묵하게 자리를 지킨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법주사 불교대학 도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봉축 행사의 여러 부분을 맡아
정성껏 준비하고 진행해 주셨습니다.
부스 운영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사부대중을 위한 환대였고, 연등의 밝음을
행동으로 옮긴 실천이었으며, 무엇보다
법주사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 법을 삶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맞이하던 그 마음이야말로
불자답게 손님을 맞는 수행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날 도반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안내하고,
손수 청소하고, 어르신들 손을 잡아 자리를
안내하는 그 모습에는 경전 속 보살의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보시는 물질을 주는
'재시財施', 두려움을 덜어주는 '무외시無畏施',
그리고 법을 전하는 '법시法施'로 나뉘지만,
그 본질은 모두 나눔입니다. 나의 것, 나의 시간,
'법주사 승려복지기금'으로 금일봉을 마련해
주지스님께 정성껏 보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수행의 결실을
다시금 도량을 위해 회향한 소중한 실천이었습니다.

"보시를 하되 상相에 머무르지 말라.
상이 없을 때,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 금강경

이는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준다는 생각,
남이 받는다는 생각을 버릴 때,
진정한 보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불교대학 도반들의 봉사는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온몸으로
실천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다'는
말없이, '나는 이만큼 준비했는데'라는 마음 없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날의 모습은 진정한 무주상보시의
화현이었습니다.
봉사는 내가 남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타는 결국 자비의
실천이며, 자비는 수행의 완성입니다.
봉사와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봉사는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행은 봉사를 바르게 이끕니다.
말로는 수없이 법을 외우더라도,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아는 것'에만 머무를 뿐입니다. 하지만 나눔을
통해, 참여를 통해, 협력을 통해 우리가 배운 법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불자로서의
삶을 가장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봉축 봉사에서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도반들 간의 화합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한마음으로 도량을 밝히고자 하는
그 태도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 수행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 불교대학이 지향하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며, 함께 깨닫는 길.
법주사 불교대학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행 공동체로서 사중을 위한 일,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 그리고 법을 회향하는 삶을
언제나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단순히 봉축의 부속 행사가
아닌, 우리 도반들이 삶 속에서의 수행,
나눔과 회향의 길, 불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법주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겸손한 이끄심과 따뜻한 응원 덕분입니다.
법주사 불교대학의 자발적인 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앞장서서 신심의 방향을 보여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주사의 도량은
배우고 실천하며 회향하는 수행의 장으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봉사와 수행은
결코 다른 길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움직이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의 공덕은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우리는 봉사라는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며, 또다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 길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법주사의 미래는
밝고, 불법은 더욱 살아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도량을 밝혀 주신 모든 도반들과
자원봉사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발심은 이미 하나의 깨달음이며,
세상에 자비를 전한 크나큰 회향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보살이자,
법을 실천하는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늘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법과 인연 되어
함께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1500년 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3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마음을 **비우다 ~** 쉼 마음을 **채우다 ~**

속리산의 품에 안긴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법주사의 품 안에는 천 년의 세월 속에도 그 아름다움과 격조를 발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법주사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한 미륵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던 곳으로서 기도와 예불 수행 등
기초적인 불교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승려복지기금 동참 안내

법주사에서는 법주사 재적스님들께서 노후와 병고에 대한 고민없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적스님들의 신뢰를 토대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승려복지계좌를 개설하여 복지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신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23-1288-03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2025. 6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5.6 탄성대종사다례	2 7	3 8 약사재일 합창단법회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	4 9	5 망종 10	6 11 현충일	7 12 광명진언기도
8 13	9 14 다도반법회	10 15 보름	11 16 미륵재일	12 17	13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4 19
15 20	16 21	17 22	18 23	19 24 관음재일	20 25	21 하지 26 다라니독송기도
22 27	23 28 다도반법회	24 29	25 6.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26 2	27 3 신중기도 회향	28 4
29 5	30 6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4월 19일 보청천 문화축제


4월 19일 보청천 문화축제


4월 19일 보청천 문화축제


4월 25일 도불기원법회


4월 25일 도불기원법회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연화쇼)


법주사 신임신도회장


5월 12일 (음 4.15) 하안거결제


5월 19일 하안거 포살법회 (비구)


5월 19일 하안거 포살법회 (비구니)

●●말사 소식



청주용화사 승려복지기금 전달식



덕주사 승려복지기금 전달식



수정암 승려복지기금 전달식

승려복지를 위해 기금을 기탁해주신
청주 용화사 각연스님
덕주사 정진스님
수정암 석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명장 수여


혜은사 덕산스님 주지임명


심불정사 영명스님 주지임명

미륵재일기도 – 6월 일정 : 6월 11일 수요일 오전10시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매월 음력 16일 올리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6월 일정 : 6월 7일 토요일 오후1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언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기도 – 6월 일정 : 6월 13일 금요일 오전10시

중생구제를 대원력으로 삼으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고 공양을 올리며
연이 닿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6월 일정 : 6월 21일 토요일 오후1시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구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6월 일정 : 6월 25일 수요일 오전10시

신중기도는 매월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시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생일불공 – 생일부터 3일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 없이 복된 날에 부처님전에 정성드리는 인연을 지으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043)**543-4755 , 010-6732-0133**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법회일은 법회준비와 현장접수로 인해 통화가 어렵습니다.
- 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법주사)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가사袈裟는 부처님의 옷이자 보살의 법의이며 스님의 법복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의식주인 음식, 약, 침구와 함께 부처님 당시부터 재가자가 승보에게
올리는 가장 귀중한 공양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는 불보살님의 몸을 보호하며
수행의 표상입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삼보의 한 존재인 승보를 보호하고 불교를
꽃 피워가는 일이기에 가사불사는 모든 공양의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불설가사공덕경에서 “가사불사를 발원한 이는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백 가지 복이 구름일듯이 일어난다”며 가사불사의 공덕을 전하셨습니다.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는 불기2569년 을사년 윤년을 맞아 대웅보전 세분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을 담아 황금가사를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종단 최고의 가사명장이시자
법주사 율주이신 무상큰스님께서 평생의 원력으로 삼으셨으며 법주사의 역사와
불자님의 생애에 길이 남을 이번 불사에 동참하시어 잊혀져가는 불교의 전통을 지켜내고
한량없는 거룩한 복덕을 지으시어 세세생생 청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삼존불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가족 100만원 (세분 부처님의 가사집에 성함을 올려드립니다)
- **승보공양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분 40만원

※ 법주사 스님들께 가사지어 올려드리는 불사로 스님의 가사에
공양올리신 불자님 성함 올려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38-2785-53(법주사)

“훌륭하도다. 해탈복이여! 위없는 복전의로다.
내 지금 이 기사袈裟를 받들어 수하노니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옴 마하가바바다 슛제 사바하.”



생전예수재 안내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윤 6월을 맞아
살아있는 ‘나’ 자신과 살아숨쉬는 모든 존재들의
참회와 공덕을 닦는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란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극락세계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기도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업장소멸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신도님들께는 법주사에서 대중의 원력으로 진행
되는 이번 생전예수재에 수희 동참하시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락왕생의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생전예수재 일정

입재 : 7월 25일(음 윤6월 1일) 금요일
초재 : 7월 28일(음 윤6월 4일) 월요일
2재 : 8월 4일(음 윤6월 11일) 월요일
3재 : 8월 11일(음 윤6월 18일) 월요일
4재 : 8월 18일(음 윤6월 25일) 월요일
5재 : 8월 25일(음 7월 3일) 월요일
6재 : 9월 1일(음 7월 10일) 월요일
회향 : 9월 8일(음 7월 17일) 월요일

생전예수재 동참금

10만원(생전예수재 준비물 포함)

생전예수재의 공덕

첫째, 마음이 항상 즐거우며
둘째, 전생과 내세의 죄업이 소멸되며
셋째, 심신이 경쾌해지며
넷째, 가정이 평안해진다
다섯째, 무병장수를 누리고
여섯째, 심덕이 깨끗해지며
일곱째, 원하는 바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덟째, 공덕이 쌓일 뿐만 아니라
아홉째, 깨달을 얻고
열째, 극락세계에 태어난다